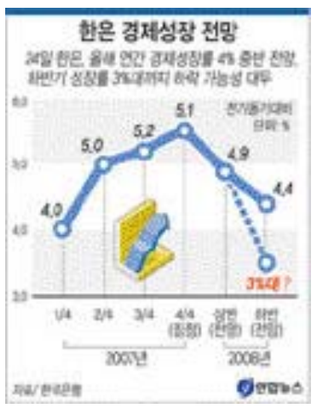
암울한 한국경제



IMF 올 성장률 4.1%로 하향조정

韓銀도 3%대 하락 가능성 내비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1%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IMF "올 성장률 4.1% … 물가에 초점 맞춰야"=IMF는 24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4.2%)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IMF는 "수출이 탄력성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를 제약하며 세계적인 식량과 연료의 높은 가격이 소비를 압박해 물가 급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성장은 4.1%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완화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올해 후반에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IMF는 전망했다.

IMF는 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정책은 당분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속적이고 강한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08년 경제·산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쳐 연간으로는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수출은 4천37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7.8% 증가하고 하반기 무역수지는 49억달러 흑자를 내는 등 연간 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하반기 성장률 3%대 가능성"=한은은 7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 수준으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태 총재도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은 4.5%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4.5% 또는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3%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한은 안팎에서 대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5.8%로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반기 성장률이 5%대를 유지할 경우 연간 전망치가 4.5%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3%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4분기에 국제유가 급등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악재가 있었지만 상반기 성장률도 5%대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연간 성장률이 4.5%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에는 하반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셈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첨단 LED 제품 2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된 'LED엑스포&FPD코리아2008'에서 관람객들이 (주)다산에이디의 다양한 LED 제품을 구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가격차 큰 품목 '폭리' 여부 조사

공정위, 이르면 내달부터 … 수입 캔맥주·화장품 등은 50% 이상 비싸

해외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월등히 비싸 폭리 의혹이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스를 댄다.

공정위는 24일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들 가운데 유통이나 가격결정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품목의 국내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품목들의 국내외 가격차이 뿐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업체를 골라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 구매력 지수를 활용해 스낵·커피·주스·맥주·서적·화장품·골프장그린피 등 7개 품목의 국내 가격을 선진 7개국(G7) 평균과 비교한 결과 수입 캔맥주와 커피·화장품 등은 5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달 말에는 밀가루와 설탕·의약품 등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10여개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의 마진율과 국내 유통과정을 분석해 국내 수입 또는 판매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거나 유통단계에서 특정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이 드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가격에는 환율이나 세제·물류비·원자재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격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품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품목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산층 10%P 줄었다

KDI보고서, 지난 10년간 … 7%P는 빈곤층 전락

중산층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점유율도 감소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참여정부 임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많은 재정투자를 했지만 복지전달체계가 잘못 작동해 빈곤은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주임연구원은 24일 발표한 'KDI 이슈분석 :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통계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총소득, 시장소득 등 다른 소득기준을 통해서도 유사한 추이가 나타났다.

이 기간에 중산층에서 상류층(중위소득의 150% 초과)으로 이동한 가구는 3%포인트이며 빈곤층(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 정도에 달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비중이 상류층으로 올라선 가구의 2배를 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조세와 공적연금, 사회보험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울프슨(Wolfson)지수는 중위소득으로부터 소득의 분산정도가 클수록(양극화될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설정을 통해 중산층의 몰락정도를 표시한 지수로, 높을수록 중산층이 더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합뉴스

국내 주식형펀드 1년 평균수익 '0원'

절반은 원금 손실도

국내 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운용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은 23일 기준으로 0.88%를 기록했다.

평균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낮아 채권투자, 배당 등에 대한 세금 지출을 빼면 투자 수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가운데 절반은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수익은 커녕 원금 손실마저 생겼다. 설정 기간 1년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인덱스 포함) 418개 중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펀드는 215개(51.4%)였고 일부 펀드의 경우 1년 손실폭이 -20% 근처까지 확대됐다.

이에 반해 '삼성비과세Value주식2', '동양e-모아드림삼성그룹주식 1클래스A', '한국삼성그룹적립식주식 1ClassI' 등은 1년 수익률이 10%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유출 하나로텔 40일 영업정지 '중징계'

방통위 결정 … 초고속 인터넷 신규 모집 금지

고객 개인정보 유출해 물의를 빚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기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요금 변경 등 민원업무는 계속 진행되며 하나TV나 시내전화 같은 다른 서비스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15조 1항5호(이용약관 위반)를 적용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천8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방통위의 공식 의결서가 전달되는 7월초부터 40일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SK텔레콤과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도 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354만명이며 광주·전남은 21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 권하는 사회'

소주·위스키 등 소비 늘어

맥주는 작년 보다 4.7% ↑

술 소비가 늘었다.

고유가 흐름과 생활물가 상승 영향 속에 소주, 맥주, 위스키 소비량이 예외없이 모두 올해들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대한주류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1-5월 소주, 맥주, 위스키 판매량 집계 결과 작년동기에 비해 소주는 1.0%, 맥주는 4.7%, 위스키는 0.6% 각각 늘었다.

소주의 경우 국내 소주업체 10개사의 판매량이 4천758만4천 상자(1상자 = 360㎖ 30병)로 작년 동기의 4천709만 상자에 비해 1.0% 증가했다.

맥주 시장은 올해 1-5월 7천205만5천 상자(1상자 = 500㎖ 20병)가 팔림으로써 작년 동기의 6천881만5천 상자에 비해 4.7%나 커졌다.

올해 1-5월 위스키 시장도 소폭이나마 '파이'를 키웠다. 이 기간 판매량이 126만5천459 상자(1상자 = 500㎖ 18병)로 집계되면서 작년 동기의 125만7천809 상자에 비해 0.6% 증가했다. /연합뉴스

고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감자설을 유포한 것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감자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허위감자설을 퍼뜨려 인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 및 1심의 판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고,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론스타가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등유 쓰는 차'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주로 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는데 사용되는 등유를 수송용 차량연료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에 공급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용자가 등유 등을 구매한 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 유사 휘발유나 유사경유를 팔거나 사용할 경우 판매자와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수송용 연료를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아람기업	기계 및 기구설계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62-236-0782
㈜그린텔	KTF 동광주멤버스플라자 정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6	042-223-4900
남화토건㈜	토목기사(산업기사) 경력직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6/26	062-520-1051
㈜세광조선	하반기 재무팀(경리, 자금)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7	061-270-9716
㈜HRN	SK텔레콤 기지국 설치 보조감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27	062-529-2671
㈜한국공업엔지니어링	[광주공과학원]검사원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6/28	062-369-0790
지비씨 주식회사	사무관리 및 쇼핑몰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9	062-350-8170
㈜미보	조선기자재 CAD 및 생산관리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29	062-946-7000
미래안전물산	온라인 쇼핑몰관리 및 홈페이지관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30	062-962-5160
㈜아이포스텍	프레스금형 제작 경력자 및 초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959-4238
우양물산	[경리직/생산직]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603-0061
지성디자인	매킨토시(Mac) 디자이너	초대졸/경력3년	2200~2400	06/30	062-227-0554
한국시멘트㈜	회계, 사무관리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1	062-519-1605
㈜네츄럴디톡시	약국 홍보/마케팅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01	062-383-324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자동차 비상급유 서비스 손보사, 9월부터 유료화

자동차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올해 9월부터 유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 영향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9월 이후 신규 가입자와 보험계약 갱신 고객에게 기름값을 받고 비상급유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비상급유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등 주유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름이 바닥 났을 때 하루 3ℓ 까지 연 5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모든 자동차 보험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 9월부터는 기존 무료 비상급유 서비스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2만5천원 내외인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